

메뚜기로 심리치료... 장성군, 정서곤충 산업 뛰어든다

산업곤충 대중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삶의 질 향상·정서 함양 등에 효과적
체험 콘텐츠 개발·교구 제작 등 힘써

장성군이 메뚜기를 '정서 곤충'으로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곤충을 대중화하기 위해 메뚜기 체험 프로그램의 용역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곤충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량은 물론이고 사료, 환경정화, 애완,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곤충산업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물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번식력이 좋고 영양적 가치가 좋은 곤충이 대안식량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곤충은 단백질과 키토산 등 건 강화 식품에 포함돼 있는 성분이 많아 인체에 유익하다. 사료 효율성이 뛰어난 것도 곤충산업의 장점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1kg을 만드는 데는 각각 사료 10kg

과 5kg이 필요한 데 반해 곤충인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 데는 사료 1.7kg만 있으면 충분하다. 식용 가능한 부위도 귀뚜라미는 80%인 반면 소는 40%에 불과하다. 곤충의 사료 효율이 소보다 10배가

량 높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곤충산업은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 곤충을 사육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돼지의 10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이처럼 유망산업으로 성장 중인 곤충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한 사업에 나선다. 정서곤충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해 메뚜기를 학교교육 및 치유농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한 것. 정서곤충은 인간의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생명존중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뜻한다. 충북대 식물학과 연구팀은 2014년 애완곤충 키우기와 곤충 관련 도구를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인간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메뚜기를 학생들을 위한 정서곤충으로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

움을 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4개월간 ▲브랜드 개발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교구 제작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개발 등에 나선다.

장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정서곤충의 특성 및 장점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정서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대상자가 쉽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충북대 식물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곤충을 키우면 자아존중, 우울감, 책임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삶의 질, 삶의 질 항목의 점수가 곤충을 키우지 않을 때보다 높다"면서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은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정서 치유 및 함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기획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진도군, 어린이집 급식 실태 등 종합점검

진도군이 보조금 부정 지급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법정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선정 및 교부 ▲사업 수행 ▲회계 관리 ▲시설·재산·인력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이에 맞는 일괄 및 개별 배식 등 아동들이 취향별로 영양소를 갖춘 충분한 양이 배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할 방침이다.

군 기획조정실 김경숙 감사담당은 "지원 기관과 단체 등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5555knj@

평택시,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개최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WORLD HERITAGE-세계의 유산'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열썬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 사단법인 평택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존 활동에 기여하고,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WORLD HERITAGE-세계의 유산'는 농악을 사랑하는 시민 동호회의 길놀이로 시작되어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처용무, 정선아리랑, 태권, 강릉농악, 강강술래, 평택농악 등 5개 종목, 6개 단체의 특색있고, 신명나는 공연이 80여 분 동안 씩 없이 펼쳐진다. 조한숙 평택농악보존회장은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WORLD HERITAGE-세계의 유산'을 통해 음악, 춤, 놀이, 무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인류무형문화유산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세계의 우리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bhlee777@

'섬유 교역전'서 경기도 원단 50억 수주 성과

유망 섬유기업 20곳 실적 거둬
섬유 우수성 대내외 인정 받아

경기도 유망 섬유기업 20개사가 국내 최대 규모 섬유 패션 전시회에서 50억 원 규모의 수주상당 실적을 거두며, 국내 원단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PIS, Preview in Seoul 2018)'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 이 같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330개사 참여해 570여개의 부스가 구성됐으며,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울러 도는 이곳에 '패션관'을 일부 구성, '2018 경기 니트 패션쇼'에 참여했던 장광호, 흥은주, 명유석, 광현주, 권오승, 김무겸 등 국내 정상·신진 디자이너 11인이 참가업체들의 원단을 활용해 직접 디자인한 의상 40여벌을 전시



/경기도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관 참여기업인 포천시 소재의 니트원단을 주로 취급하는 조은텍스타 일즈는 그간 꾸준한 경기도관 참가를 통해 하이엔드 제품에 사용되는 고급 원단을 제조 및 홍보해왔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B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약 3억 원의 계약실적을 거뒀다. 안성시 소재의 명승은 벨벳스판 전문 취급업체로, 주요 원단별 의류 제작 및 전시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대형벤더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중 중국 R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 2억 4천만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고, 추후 오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새로운 트렌드와 차별화된 전략만이 경기도 니트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열쇠"라며 "경기도 섬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ksc@

함평군, 내년 농산어촌개발사업 66억 확보

전남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7개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으로 살고 싶은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다. 군은 신규사업 공모에 대비해 매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 왔다. 그 결과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총 66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제공에 힘쓴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개 마을(함평읍 월봉마을, 엄다면영화정마을, 대동면 감산마을, 나산면 용수마을, 월야면 양지마을)에 총 24억5800만원을 투입해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해 주민교육, 마을리더 양성 등을 진행한다. 이 사업들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윤행 군수(사진)는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평화롭고 살기좋은 함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한 추진과 2020년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넘어 복지까지
'반려동물 종합보호센터' 계획

광주광역시는 관내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동물 보호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4억3500만원과 함께 동물 보호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비 1억5000만원, 사료비·약품비 등 운영비 4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에 대한 단순한 보호·관리를 넘어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보호센터를 포함해 입양센터, 동물놀이터, 보호교실 등을 아우르는 가칭 '반려동물 종합보호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현재 국비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종일 기자 raser506@